

“서울우유 공장이전 도움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 서울우유 양주공장 방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서울우유의 공장이전 건의에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3월21일 양주시 덕계리의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방문해 서울우유 용인 양주 안산 거창공장 가운데 용인과 양주공장을 통합이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현장을 청취했다.

또 김 지사는 공장이전 설립이 가능하도록 서울우유 공장이전을 '경기도발전종합계획'에 넣고 미군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낙농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우유 관계자들의 건의에 최선의 다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내로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경쟁력과 회사 입장에 서로 윈윈하는 공장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다같이 마시는 서울우유인 만큼 양주시장과 함께 도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가 안 계시고 조합원들로 경영하는 서울우유가 수많은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넘어 승승장구 할 줄 몰랐다”며 “도심의 아이들에게 목장현장 실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면에서도 기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수 도지사님의 서울우유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7. 3. 21 서울우유 임직원 일동

고압철탑 지중화 사업 2011년까지 完工

의정부시와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이행 협약서 체결



의정부시 -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이행에 관한 협약서 체결
2007. 3. 22(목)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3월22일 한국전력공사와 용현동, 민락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의정부변전소와 가공송전선에 대하여 이전 및 지중화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성황리에 이루어진 협약서 체결식에는 김문수 의정부시장과 한국전력공사 한준호 사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내용에 대한 협약서 서명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의정부시와 한국전력공사간 의정부변전소 이전 추진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이래 6개월여 기간동안 여러 차례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한 결과 변전소는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후보지를 확정하고 가공송전선(송전탑)에 대해서는 모두 지중화하기로 합의를 도출해 넘어서서 급기야 쌍방간

협약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송전설비 지중화 사업비는 약 2천여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장 큰 규모의 고압 철탑이 철거되는 사업이며, 사업비중 의정부시에서 42%를 부담하고 한전측에서 58%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사업기간은 각종 인·허가 절차와 공사기간을 합쳐 2011년이면 완전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한전에서 추진하게 되며 한전측에서도 전국 최초의 대규모 고압 송전탑 이전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내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어 예정 공사기간내 공사가 완료되면 의정부시 용현동, 민락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모하여 신중추거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市 조형물 이미지 시민들 큰 호응

녹색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의정부시

의정부시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외곽에 설치한 조형물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아 시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연말 의정부시 회원동 196번지 시경계 일원에 4억6천90여만원을 들여 높이 9.39M, 가로 1.23M의 LED전광판형 조형물 3개 설치와 화단을 조성했다.

또한 시는 경찰서와 협의회 교통사고로 인한 훼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충격흡수시설 및 보조탱크, 탄력봉 등 교통안전시설도 설치해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전 장애를 받지 않도록 했다.

시에 설치된 조형물은 시의 발전상과 상징성을 부여하고, 시경계 이미지를 정보문화도시 이미지에 부합 되도록 개선 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거리로 알려 젤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왕복8차선 도로인 국도3호선 중앙에 위치한 조형물은 산뜻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는 색상의 화려함 등이 시 경계에 진입을 알려주고 동시에 기존의 어두웠던 거리를 환하게 밝혀 주어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내방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겨울 눈이 오는 추운 날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주유소 앞에 세워 놓고 LED조형물 앞에 서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시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민들의 불거리로 알려 젤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왕복8차선 도로인 국도3호선 중앙에 위치한 조형물은 산뜻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는 색상의 화려함 등이 시 경계에 진입을 알려주고 동시에 기존의 어두웠던 거리를 환하게 밝혀 주어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내방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겨울 눈이 오는 추운 날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주유소 앞에 세워 놓고 LED조형물 앞에 서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시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복무규율 확립 대책회의

의정부경찰서, 경위 승진임용식

의정부경찰서(서장 신정배)는 3월30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등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무규율 확립에 따른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는 방순대 이만우 등 2명에 대한 승진임용식이 있은 후, 각 과별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신 서장은 훈시를 통해 “지구대·파출소에서도 강·절도범 검거에 만전을 기하고, 음주운전·피의자 관리 등 자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기본 근무에 충실히 임하며, 주말에는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토/뉴/스
공항철도 개통
2007. 3. 23. 의정부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월23일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열린 '인천공항철도(AREX) 개통식'에서 이용섭 건설부장관, 안상수 인천시장 등 내빈들과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사랑의 촛불과 함께 즐거운 하루

의정부1동 저소득층 어르신 생일상 잔치

관내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일상을 매번 정기적으로 차려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잔잔한 감동을 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정부시 의정부1동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가 그 주인공들이다.

3월28일 관내 한식 전문음식점에 반짝 반짝 빛나는 고깔모자를 쓴 어르신들의 전진한 모습과 생신을 축하하는 노래 소리, 박수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사랑의 촛불이 밝혀졌다.

이어서 케익 절단 및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이날 초대된 20여명의 어르신들은 가족 없이 홀로 생일을 맞이하거나 생일상을 받지 못하는 관내

독거 노인들로서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대접하여 어르신들 마음에 이로운 따뜻한 정과 사랑을 심어 주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의정부1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김, 미역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관내 식당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부녀회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 주위에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쓸쓸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 가슴아프다”고 했다.

한편 이원재 의정부1동장은 “요즘같이 메말라 가는 세대에 매년 어르신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기회를 주는데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의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함을 느낀다”며 “작지만 조금씩 이웃사랑을 실천하다보면 행복한 의정부1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천상병 시인의 詩와 다양한 예술의 만남

제4회 천상병예술제 4월28일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하루치의 막걸리와 담배만 있으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서슴없이 외쳤던 시인. '문단의 마지막 순수시인' 또는 '문단의 마지막 기인'으로 불리웠던 천상병 시인을 기리는 제4회 천상병예술제가 4월 28일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올해 천상병 예술제는 창작뮤지컬 '귀천'을 제작하여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초연의 무대를 올리며, 천상병예술제 고정 프로그램으로 브랜드를 높이고 있는 '시가 흐르는 천상음악회'와 문인 및 화가 20여명의 자필 원고 및 시화전이 선보이는 '천상으로 보내는 편지' 특별전 등이 열린다.

28일과 29일 이틀간 공연하는 창작뮤지컬 '귀천'은 의정부예술의전당과 극단 즐거운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시인의 일대기를 표현한 기존의 작품과는 달리 '뽕뽕 사건'을 기점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파괴된 천재시인과 그를 고문한 또 한명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를 등장시켜 두 인물의 잃어 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천상병예술제 고정 프로그램으로 브랜드를 높이고 있는 '시가 흐르는 천상음악회'는 연극 배우 강애심씨의 사회와 소리꾼 장사익, 나무자전거, 퓨전국악팀 '뮤직포레'와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가 노래선임으로 나온다.

특별전시회 '천상으로 띄우는 편지'는 종경 문인과 화가 20여명의 자필 원고 및 시화 전시회와 천상병 시인의 유품 및 사진, 홍상과 소장품 20여점등이 전시된다.

참여문인으로는 정호승 시인, 신경림, 김남조, 민영, 성춘복, 박정희, 이외수, 김지하 시인과 화가 이목일, 성륜, 박광호, 최을가, 노학봉, 김희진씨 등이다.

이밖에도 천상병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조명한 짧은 평론가들의 평론집 출판 기념회와 4회 천상백일장과 시집판매 등의 부대행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지난 제3회 천상병예술제에서는 「천상 詩展」과 「천상음악회」 창작무용극 「귀천」 등이

펼쳐졌으며, 특히 「천상음악회」에서는 창작국악곡 「귀천」(작곡-김성진 서울시립국악단 지휘자)이 프리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의해 국내 최초로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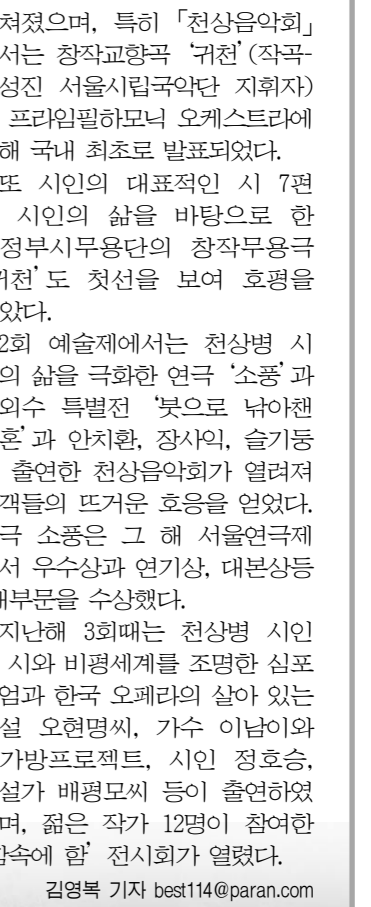
또 시인의 대표작인 시 7편과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한 의정부시무용단의 창작무용극 「귀천」도 첫선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2회 예술제에서는 천상병 시인의 삶을 극화한 연극 '소풍'과 이외수 특별전 '벗으로 남아낸 영혼'과 안치환, 장사익, 슬기등이 출연한 천상음악회가 열려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연극 소풍은 그 해 서울연극제에서 우수상과 연기상, 대본상등 3개부분을 수상했다.

지난해 3회에는 천상병 시인의 시와 비평세계를 조명한 심포지엄과 한국 오페라의 살아 있는 전설 오현명씨, 가수 이남이와 철가방프로젝트, 시인 정호승, 소설가 배평모씨 등이 출연하였으며, 짧은 작가 12명이 참여한 '함속에 함' 전시회가 열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무총리상 수상 상사업비 3억원 받아

의정부시 재정운영실태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의정부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재정운영실태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등급인 A등급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 수상과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 받았다.

시는 3월26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장명재 행정자치부장관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지방

재정분석 우수기관 정부표창수여 행사에서 의정부시가 국무총리표창과 재정안전티브로 3억원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재정분석은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개선 노력도 등의 추세를 측정할 수 있는 30개 지표를 확대 운영하고 민간전문연구기관에서 분석을 실시해 제

도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강화한 이번 평가는 재정분석 결과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정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재정운영이 부실한 단체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와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고 정부의 지방재정 혁신 방향에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친 점도 좋은 평가를 뒷받침했다.

특히 시는 새로운 지방재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도에 대한 자체교육과 시험 예산편성, 전담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담당 신설과 기초자료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같은 결과는 열악한 재정상황속에서 자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및 경성적 경비의 지속적인 절감 노력과 미래성장동력, 균형발전 부문에 투자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랑의 휠체어 전달

의정부1동, 캔뚜겅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난 한해 동안 동사무소 직원 및 주민들이 캔뚜겅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휠체어를 구입, 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기증하여 포근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눠 화제가 되고있다.

의정부1동은 무심코 버려진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있는 캔뚜겅이 휠체어 바퀴의 소재로 쓰인다는 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직원들과 주민이 함께 사랑의 캔뚜겅 수집운동을 전개했다.

직원들과 주민들이 앞장서서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10kg을 수집, 수익금 30만원으로 휠체어

1대를 구입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치매노인들을 돕는 데에 기증하여 포근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눠 화제가 되고있다.

이런 사랑의 캔뚜겅 수집 운동에 동참한 이재현(의정부1동 거주, 46세)씨는 사랑의 캔뚜겅 수집운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원의 생명의 의미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교육체험이 되었으며, 또한 그 판매대금으로 구입한 휠체어를 노인분들에게 기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도 계속적으로 수집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원재 의정부1동장은 “앞으

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 휠체어 구입보다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지속적으로 캔뚜겅 수집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